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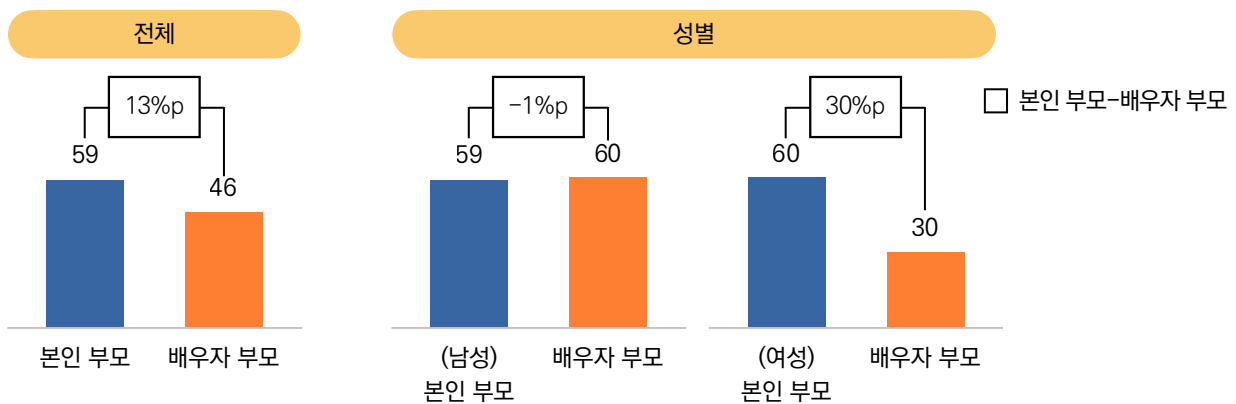


[배우자 부모 만족도]

배우자 부모 만족도, 남성은 양가 비슷 vs 여성은 시부모 만족도가 30%p 낮아

- 기혼자들의 양가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한국리서치)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. 양가 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대상으로 본인/배우자 부모에 대한 관계 만족도(매우+약간 만족)를 각각 물은 결과,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은 59%,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46%로,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차이가 13%p 벌어졌다.
- 주목할 점은 성별 차이다. 남성은 본인 부모(59%)나 배우자 부모(60%)나 관계 만족도가 비슷한 데 반해, 여성은 본인(친정) 부모와의 관계에는 60%가 만족,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절반 정도인 30%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무려 30%p의 격차를 보였다.

[그림] 본인 부모/배우자 부모 관계 만족도 (2026, 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있는 사람, N=205, '매우+약간 만족한다' 비율*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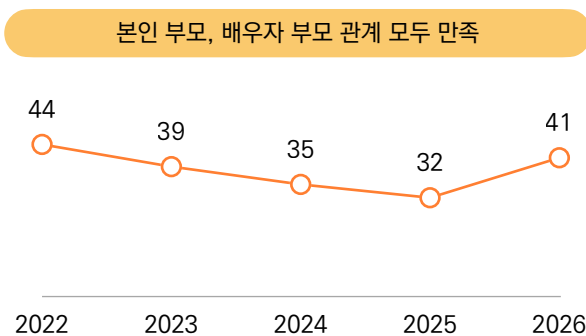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가족인식조사] 가족관계 만족도, 2026.09.15.(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5.08.~05.11.)
*5점 척도

양가 부모와의 관계 '모두 만족', 2022년 이후 4년 만에 상승 전환

- 양가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기혼 남녀 중 '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모두 만족'하는 비율은 2026년 기준 41%였다. 2022년 44%에서 2025년 32%까지 3년 연속 지속되던 감소세를 끊고, 올해 9%p 반등하며 40%대를 회복했다.

[그림] 양가 부모와의 관계 '모두 만족' 비율 추이 (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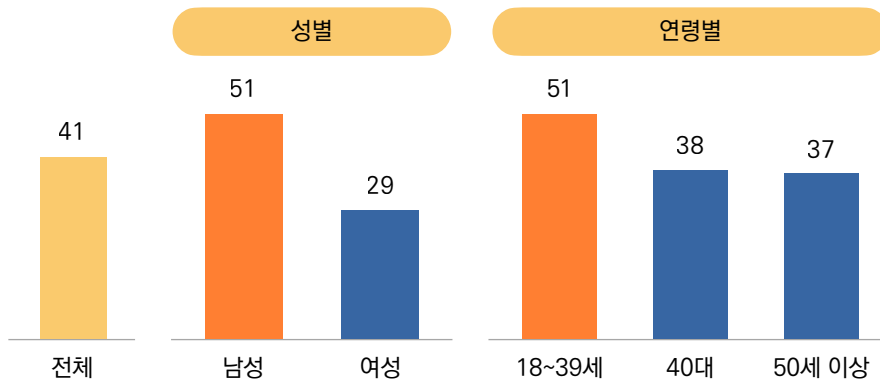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가족인식조사] 가족관계 만족도, 2026.09.15.(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5.08.~05.11.)

남성 · 2030세대일수록 양가 부모 관계 ‘모두 만족’ 비율 높아!

- 양가 부모 관계에 모두 만족하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‘남성’은 51%로 과반을 차지했지만, ‘여성’은 29%에 그쳤다.
- 연령별로는 ‘18~39세’(51%)가 40대(38%), 50세 이상(37%) 대비 상대적으로 양가 부모 모두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성/연령별 양가 부모(본인+배우자 부모) 관계 ‘모두 만족’ 비율
(2026, 기혼자 중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자, N=250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가족인식조사] 가족관계 만족도, 2026.09.15.(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5.08.~05.11.)